

소비시장 여전히 활성화 안돼

돼 지고기 유통시장이 양분화 현상을 띠고 있다. 국산육은 산지 및 지육값 강보합세 지속에 따른 공급, 판가 결정에 고민스러워 하고 있다. 반면, 수입육은 여전히 가격 상승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상황을 바탕으로 할 때 산지가 시장을 끌고가는 형상을 띠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소비시장은 아직까지 크게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같은 현상에 모두가 애로를 겪고 있다. 더욱이 삼겹살의 경우 재고가 늘어나고 있어 연말이 다가오면서 육가공업체 및 유통업체들은 자금회전을 위해 다양한 판매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국내산 삼겹살 유통가격은 일부 극소수의 물량이 kg당 4천8백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유통물량이 5천원대~6천원대 이상 거래되고 있다.

수입삼겹살은 올 하반기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별, 브랜드별 가격차이는 있으나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시장 유통가격은 소비둔화와 재고량 증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 kg당 4천원~5천3백원 선에 형성되고 있다.

국내산, 수입육 삼겹살 유통가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산의 경우 본격적인 소비성수기를 맞으면서 다소 가격상승도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지 및 지육가격 강세가 주춤, 또는 다소 낮아질 경우 유통가격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養豚**



권영철
(미트저널 편집국장)



국내산의 경우 본격적인 소비성수기를 맞으면서 다소 가격상승도 예측되고 있다.